

추풍감별곡



[해제]

이 가사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미 해제 가사로 "적시게말고손나라이을진디아모리친절하고괴수가 업나나라도짐죽혀등분있게디점말며바그셔" 모녀모녀모녀상상가상가 가사집에 수록된 국문 가사이다.

[원문]

추풍감별곡

려니와만일순치아니하면부모으게득죄하고
동싱으게실화하고가장으게소되밧고지친니괘격혀
이우지흔극나고노복이원망허리니그런고로순
불순에길불길잇난비니바건디순하기로네일신
에부덕을삼아일생을한갈갓이조심하리로다
나난어려서엄친을여히고교훈을밧좁지못하
와종신통한지라김훈지라너을가라쳐아비교
훈밧들게함이니나의뜻을바다어기지말면자식
의도리올훈가하노라말리흔한것시부녀의악
덕이니어려서붓틈말삼을드물게하고모힌대불긴
한수작이잇거나혹남의하적한말리잇거든한
가지당의드지말고피좌하여드란채말거시니만월한
마리라도간섭하다가원망니도라오면엇지하리오
조심할거시라몸가지기랄단정하고공경하고
민첩하기랄승상하고횡보랄조용히하고
어음을나죽히하고안즈나셔나왕닌흔난문
압과등존화로등불가죽흔디와남의압과
식이의안지말며어룬게신디문압히셔며안지
안지아니하나니라십세가넘거든문밧글님의
로나지말고낫여다르거던친근니셔지말며손
으로써로주고밧지아니하나니라날마다식빚이러
나쇠수를혀도어룬보다먼저하고머리랄췌셔
도일직이밧고남보난디설만니아니하나니라
음식장만하시난부녀의소님이니어려시붓틈
무심히보지말고다비호디형세예맛게하여
부귀허그든스치할사조심하고간고허그든
어모불스홀가조심하고극진이할거시라
반과괴명을정결이싣고놋키랄차례있게
하고정제히할거시오옛스람이자를버려

도치수가잇고고곡을방정히버헛스니이거시라
 법바들만흐도다어룬으게드리난거션비록소소
 한거시라도반과절을갓추우고반의놋키적그든
 덕야나정반의밧치난게올흐니라의복지절은
 부녀의제일정염할의리니어려서붓툼부즈런혀
 스나종의뇌웃침이업나니라방적과음식은부녀의소님
 이니부리혀너모안일히고어공을춤디아니하면
 스치한형실이니필경길치아니할거시니용여혀
 머조고함을힘쓰라의복흐난도리난도리난먼저
 부모의복을하고그다음가장의복을하고그제야조
 그와조석과노복의복을하되부모게드리난음식
 이복은조곰스치하야도형계할만하면홀거시오부모이
 외난금소혀그랄힘쓰라이복제도난점점변혀이
 적어미이난모양이창익와갓흐니그올치못한일이
 니라부디맛게혀먹임고써러진의복의식다른쏘각
 을아니깁고정계흐나니라종이라흐난거손상전의수족
 우익시니의복을볼스이흐니입히면그상전의마음
 을알거시니청염혀미올흐니라제스을밧들기난
 인가큰예절이니지성하면조성이흠안혀시고홀만
 하면흠양치아니시나니흠양혀시면덕복을주시고
 흠양치아니시면화를주시나니그러무로예전사람이
 칠일기도혀야숨일지게하고동동촉촉흐난정경
 이신연이감동흐난지라여경이조손으게진진혀야부
 귀날누리나니라제스잇난집은제수범절을미리녹
 렴혀야비록소소한실과라도업식지아니하고두나니
 라제수가만코적기난형계되로흐난거시니한갈갓치
 금속은못혀녀니일년의한번오시난괴스랄무
 심히잇고잇다가님시혀되난되로흐난거션
 아모리풍비혀도제밧드난도리가아니라과품과
 소치와뉴장과곡석으로드난거손부녀의갓튼거시
 니비록형세한지라도가을광혀야미리제스위스랄
 싱각혀야준비홀거시오부족홀듯흔거션미리변
 통혀여넉넉후의다란되쓰난거시올흐니라제스
 랄정거혀야집안을쓸고이복을씨어입고머리밧
 고직계를하되아히들과종가지씨기난거시니라제스초리
 난도리난정제일시빅머리밧고집안을쓸고식웃입
 지말고조식과종이라도꾸짖지말고음성을놉히말
 고제물을다리다가혹나려져도거두어정계두고계

견니먹게말며ㅎ빅을명ㅎ여요란니소리를말
 게ㅎ느니라빈긔딇접ㅎ난도리난제스다음이니음
 식도청염ㅎ녀니와제일걱정ㅎ느소리집안
 의업게ㅎ고종니라도꾸짓지못ㅎ며여스로ㅎ난소
 리라도손의귀의줄가니각별조심ㅎ여만니적적
 ㅎ여빈집갓치ㅎ느니라손이상의음식을보면그
 안을아나니수저와긔명과반을정결이ㅎ야눗코음
 식마설친히보와함담을맛게ㅎ여ㅎ고손잇난딇
 문틈으로엿보난거부녀의형실아니니말거시오만
 일인스할손니오거던아모리친절ㅎ손니라도조
 리을쓸고입든오설간수ㅎ여손의눈의보게말며손
 의음식을실시늦게말고요긔ㅎ고째날손은더옥급급
 히하여갈길이더되마라빋치고이한긔명과모엿난반과
 동녹쓴슈쳐난빋갓상의난눗치못ㅎ여니와손의게더
 옥부당ㅎ며손의하인은가의회먹이고저의상전으
 게고민ㅎ게말거시며손의반찬을중만ㅎ딇부정
 이말고꾸어도설게말고지와티못게말고아히들
 적시게말고손니라이을진딇아모리친절ㅎ고긔수
 가업나니라도짐족ㅎ여등분잇게딇접말며빋긔서
 딇접고저ㅎ난손은더옥청염할거시니히회뉴슈암실
 닉상환후슈암이초상치여솔피시니다리버힌흔적
 이잇거날놀나종다여무르시니손딇접ㅎ난딇반찬갑
 세파라섯다ㅎ느지나크게상회ㅎ시고즉시갑설보닉
 여촉조다가관닉의여어시니딇저형세가그리절박ㅎ
 딇가장으게그런사식을모라게ㅎ니족히규합의모
 범이될만ㅎ도다부여의형실은구고와가장성긔난
 딇볼거시니두가지외부족ㅎ면빅스가능난ㅎ여도스람
 이라ㅎ지못ㅎ느니라식부모섬긔난도리난효양을긔
 딇니ㅎ여도인스다눈치난업지못훔거시니믹스할당
 ㅎ야도비록마옴의맛지못ㅎ야도공순니시형ㅎ
 고혹익미한말슴이게오셔도발명ㅎ디못ㅎ고불편
 ㅎ거동과불순ㅎ말을스식의보니지못ㅎ
 나니라어느부모가며누리긔히ㅎ지아니리잇스리오
 마난혹이외예과도한꾸지심이게오셔도조긔되로알
 고일호도원망ㅎ느빋치업스면부모의마옴의마
 음시뉘우쳐더옥긔히너긔나니라먹긔실은음식
 을주셔도슬타못ㅎ고약간먹은후분부랄
 기다리그쓸흔일을쓰셔도못할다말고일변ㅎ

여곤쳐분부랄기다리나니라식부모의두신거손
 비록소소한무리라도말숨전의업식디못흐느니
 라조기친정서봉송이오면지방의거푸지말고
 부모보시난딴돌거시오식무리와도님의로남을
 규리못흐고분부를기다리나니라병환니게시거든
 쥬야로먹시고음식과약을친집흐야아히와중얼
 쓰기디말며병구의싱각흐시난거설못조와
 맛도룩홀거시오웃디못흐고성늑지못흐나
 니라조기몸의혹병이이스딴증정을무르시거
 든그이지말고조시엿조와진시약치하여근심흐시게
 말거시니라부노게신딴조석과종이라도꾸짖지못흐
 고부모부리시난종은님의로부리디못흐고꾸짖지도
 못흐며다른종보다별달비직히너기며우마게션니
 라도그리하나니라온갓이리다식가의당한거손비록
 논의셔려도나무리지못흐고부모보다가장의이복
 은식이복을히입히고부모이복은검기늑찌러
 저기늑흐면조석의도리가아니니세송의혹불듯한
 며누리가가장만알고의복음식을현격게하나니
 이스니이러니난천지간의용납디못홀죄악이라
 식부모먹시기난가장인도흐느딴로쫓바다흐여니와
 혹가당이미진한일이잇거든화평온순한말노극딘
 니괴뉴흐미울흐니라식가의당한말은기리고광
 치잇난말뵈기친부모게라도아니흐느니다가장딴접
 흐그난공순흐미제일울흐니라하슨의집부녀아
 가장을조기벗으로아라공경홀출모라니난무식
 한지각이니라견문업시물가히알거시라씩스날가
 장명영바다홀거시고부녀의소견니아모리통달
 흐여도모르난가장만못홀거시니악달기식빅울
 면직앙이라하나니라가장으게불순흐면가장이날딴
 대접하기을더욱박하고천히하고인하야일실
 상하야일가친척이인유로여기지아니나니일
 생악망하난사람이그러하면엇지견될빅리
 요이러므로공순하면사사이외롭고불순흐
 면사사이해롭도다세상을둘러보니부인니가장
 에게순치아니흐니와성품이거세더니난백
 사아니되고피가하나니라부인니거동이화
 순하고성품온조흐고말리드물고아난일도모르
 난듯하고능한일도즐한듯하고경박히그지아

니하더니난평생의복록이진진흐나니라가장의하
 난일이맛지못하야도남보난되말을말고조용이
 분이그인후의온순한말로그르치아니함을대
 강말하고수다케말거시니라되살랄가장모르게말
 이논이구일한후소소한흥정이라도가장모르게
 말며소소한추대라도가장알게할거시니라자식
 기로난도리난수태하여서붓터몸가지기를단정하
 고고이한음식과부정한사람과간사한빛과음탕한
 빛과소리를가직히말며생냉을아니먹나니자식을
 나으리허용이단정하고제조가잇난이라아들을
 낳거든세살지내되밧게나가잇게하고음식을때로
 먹이고진미와춘밥을먹이지말며남조으게
 당한일아니어던쓰기디말며문학의당한일
 노항상권뉴흐나니라쌀은늑집의다리고이슬게
 아니니어릴딛붓터잘가라쳐남의게천함을밧지
 아니케흐리니늑중요량은못흐고우견음식만먹이
 며교훈업기키우면도로여조석으로일침을바리
 게흐나니라여조되그든문밧고나기아니흐고여공의
 당한일은힘딛로가라치고어른섬고난도리와슈
 초하고안정흐고순화흐고일은게으름이업도록
 미리인도할거시니라종의스람되기고롭디아니흐
 니라분여의추립은딛단긴관아니흐면비록연첩한
 지친이라도가지말며마지못흐닉갈잇그든가장으
 게취품흐고부모으게청영흐닉허락이업시면가
 지못흐고가라흐여도즉시도라올거시오부줄
 업시남의집의동한이지체말거시니라부여
 난흔히낙을비웃고직우니이난되단악덕이라부
 족한사람이라도관곡히딛접흐고교만한빛
 흘보이지아닐지니라노속은극히긴요한권술
 이니상전니강악흐면산망흐고너모뉴악흐면거
 만한거시니은혜와위엄을갓치형흐나빅부
 르게먹기고덥게입히고흐로쑥짓지말고면뵈디
 아난일의의심흐고소원니딛접흐면원만흐늑
 니라종의죄비록딛단흐야거든모르고순순히괴뉴
 흐고경견니치지말며비록소소한죄라도상전의
 계악정을니여증짓흐는거동이잇그든용셔치말
 고통치흐딛정디하고존엄이보이게할거시니라
 부녀의흔극은비복으로나나니남의말듯고늑

집경과말고종의흥을남디히아니흐나니라상
 흐간의부실흐고번치너른스람을친숙히말
 고그러도미물흐면흥흐나니디접을줄홀
 거시니라투괴라흐난거손양반의집부여난
 초마할빅아니라세송의법흔집스람도일노
 해야집을맛고몸을바리고조손거지널을것치
 나니극히조심할이리오투괴을흐기로가장형실
 곤칠수업고한갓니격할분이니아른채말고조괴
 도리와형실을극진이흐면가장의마암이무안흐
 여근칠거시오셜록곤치리아니해야도남의소견의
 축한부인으로싱각흐고가되화평흐리니문당후
 비난투괴아니흐시기로만고의여충성인이되시고조손니빅왕
 의웃듬되시니라남의흥얼보아도못본척흐며나도
 흑급할가조심흐고남의축한일을보면본받
 기을힘쓸거시오남이날을허물흐그든조괴가원망
 말고도로허고마이녁일거시세상부녀드리남이쑤짓
 낫말을드르면발명봇틈흐고조괴그른줄은
 모라니그르하면이웃과지친니바리고부모으게욕
 이맛나니얼문은통정홀만흐면죽흐니세송부
 녀가흔히조괴짐척은힘쓰지아니하고허탄한척을
 가지고이우제썬일너놀기을일숨고수죽흐논디문
 조락써가며장황이말흐느니언문은너모줄흐느
 게신치못홀이리니다빈전한스람은이르도말고부
 요흐니도여공을축실이하닌야흐날이특히넥
 여복록을장구히주나니라문왕후비난천조의
 안히시디길숨흐여입으시고슬치아니흐라흐여
 시니셔빅집부여로셔여공을근고치아니리오남
 과소리난도리난먼저신실흐여야져사람이날은
 미업게여괴느니언약을흔후져바리지못흐느
 니라이럼으로무손이리든괴경션니허락말고니종
 을싱각홀거시니라치손하난디노지아니흐난게올
 커니와스람을줄인도해야시괴난거시가모의소님이
 이니만일입만보고쳐을모르며한일을듯고빅
 스을이져바리며세간을버려두고서러진줄모르면
 만격을쓰흐두고노복이천니나도집안모양이업
 나니라귀신이래흐느거손허탄흐고요망흐야증험이
 업난거신디무식한부녀난신통한영험이잇난
 다시알고무당과여복과명도등뉴랄어디잇다면

괴여뉴인ㅎ야췁귀니소익이니제술이니ㅎ며온
갓뿏리한지슬어른문괴미가며아췁온췁모르고
지뿏을허비ㅎ니이난스부가의룽금할니리니
각뻔조심ㅎ여청염할지어다우리집은딕딕
로예뻔을직히난터이라그러도학뻔션싱은
도덕이놉ㅎ시고예뻔이발그시스조손니계딕로
췁순ㅎ야도늑의둘이어니늑놈의이르러췁락은
ㅎ오니불초ㅎ미극히리롭도다조식들을
췁가라치리뿏ㅎ고너난익인이니남만뿏ㅎ야가
라치관말을올게시형할지모르나부여의췁
훈형실이이척의딕강괴룩ㅎ옛스니이만ㅎ여
도이룽일정일언일뿏을뻔바다다형ㅎ면
남의게그르다할일훈은듯지아닐거시니췁심
ㅎ여술필지어라
이척은금게김연뿏공이지어그췁님췁신거시라
옴겨쓰노나일룽을구경ㅎ오니규뿏의긴
요한뻔이니췁과열여전과다름이업도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